

## ■ 최신 해외정보 - 일본 ■

### 동경증권거래소, 빠르면 2015년부터 야간거래시장 개설

일본 동경증권거래소가 야간 거래시장 개설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야간거래시장 개설 요구가 높다면 2015년에 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상되는 거래시간은 저녁 7시부터 밤 11시 30분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시장을 야간에 거래할 수 있게 개장하면 일을 마친 직장인들이나 시차가 있는 해외투자자들의 거래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야간에 시장을 개설하여 고객응대를 하게 되면 비용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조사분석의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인터넷 증권사들은, 야간거래시장 개설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형 인터넷 증권사인 마쓰이증권은, 2003년과 2004년에도 이러한 요망서를 제출하였고, 이번에도 야간증권시장 개설을 요청하는 서류를 동경증권거래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동경증권거래소는 2011년에도 거래시간 연장에 관해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야간시장개설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점심 휴장 시간을 축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동경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이번의 요구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한 후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일본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 국가전략특구를 위한 법제화 추진

아베 정부의 성장전략의 핵심내용 중 하나로 국가전략특구제도에 관한 법률이 현재 일본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법률의 내용은 세계 최첨단 비즈니스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특정한 지역에 한정하여 대담한 규제 완화를 행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목적으로 고용, 의료, 교육, 농업분야 등 다방

면에 걸쳐 특례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총리주도로 결정되어 정령에서 규정됩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 분야   | 규제개혁항목                                       |
|------|----------------------------------------------|
| 의료   | 외국인의사, 간호사 업무 허가, 병상규제 완화, 혼합진료 확충, 의학부 신설 등 |
| 고용   | 고용조건의 명확화, 유기고용규제 특례                         |
| 교육   | 공설민영학교 허가                                    |
| 도시재생 | 도심거주축진을 위한 용적률완화, 임대주택의 숙박시설용도 변경 허가 등       |
| 농업   | 농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 적용, 농지내의 레스토랑설치 용인 등           |